

大學教科에 있어서 國際關係分野 教育의 改善方向에 關한 研究

崔 鍾 起*

〈目次〉	
第一章 序論	第三章 國際關係教科目擔當教授 의 人的 狀況分析
第1節 研究의 目的	第1節 序說
第2節 研究의 對象, 範圍 및 方法	第2節 年齡 및 經歷
第二章 全國大學의 教科課程分析	第3節 學歷 및 職位
第1節 教科課程分析表의 作成	第4節 擔當科目, 專攻 및 活動 範圍
1. 現況	第5節 共產圈 및 平和研究
2. 教科課程分析表의 作成	第四章 現行教科課程에 對한 評價 와 改善方向
第2節 國際關係教科目과 他科 目間의 比重	第五章 模型教科課程의 設定
1. 序說	第1節 目標
2. 全國大學의 國際關係教科目 의 比重 및 形態	第2節 接近方法
第3節 國際關係分野教科目의 內容分析	第3節 模型教科課程의 探索

〈要約〉

1900年 P.S. Reinsch 教授가 國際政治學이라는 著書를 刊行한 以來 全世界에 傳播되었던 國際關係分野의 研究는 우리나라에서는 解放과 함께 1945年 京城大學에 外交史와 朝鮮外交史, 國際組織論, 植民地論等이 開設되었고 이듬해인 1946年에는 亦是, 京城大學과 高麗大學에 國際政治論이 開設된 以後부터 始作되었다. 그 後 韓國動亂을 거쳐 1950年代와 1960年代에 急進의 으로 發展했던 國際關係分野研究는 1970年代에 와서는 世界情勢의 變化와 함께 그 絶頂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過程을 跟아 大學의 Curriculum 속에서 成長해온 同分

野의 教科目은 처음부터 일정한 體系없이各大學, 各學年에 任意의이고 便宜의으로 配定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內外情勢가 일각을 다투어 發展과 成長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變動의 役軍으로서 發展과 成長을 誘導하기 위한 知識人의 養成에 教育의 目標를 두어야겠고 이와 같은 目標下에서는 보다 體系의이고 均衡있는 Curriculum의 開設이 先行되어야 하며 그러한 Curriculum은 未來의 役軍에게 Vision을 提示할 수 있는 目的과 手段의 調和로운 產物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筆者는 全國 15個大學의 政治·外交學科를

中心으로 國際關係分野 教科目을 綜合하여 教科課程分析表를 作成하여 各教科목의 比重과 內容을 알아보고 各大學의 同分野教科目에 對한 比重과 全國的 比重, 그리고 同分野 教育의 現在狀況을 分析하였으며 나아가 說問紙를 通해 同分野를 直接 擔當하고 있는 教授 84名을 對象으로 그들의 身上把握과 意見調查를 行하여 分析·檢討해 보았다. 특히 最近 美·蘇間의 SALT II 會談의 交錯으로 불안의 그림자가 깔리고 있는 世界氣流와 이러한 狀況을 脫皮하려고 多角的 方案을 摸索하고 있는 西方世界의 現實을 놓고 南·北關係가 점차 惡

化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民族的 念願인 “統一”을 위한 하나의 接近方法으로서 共產主義 및 平和研究에 關한 意見調查도 並行하였다.

이러한 諸側面의 分析을 토대로 同分野教育의 現況에 對한 評價와 改善方向을 아울러 提示하고 끝으로 理想的이고 바람직한 教科課程의 設定을 위한 模範教科課程表를 作成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契機를 通하여 우리나라의 同分野教育에 올바른 方向이 定立되고 教育效果의 極大化를 위한 研究·努力이 뒤따랐으면 한다.

第一章 序論

第1節 研究의 目的

現代國際社會는 交通·通信 및 技術·科學의 急進的 發展으로 因해 過去의 어느 때 보다도 그 接觸이 빈번해 졌으며 그 關係는 不可分의 密接한 狀況에 處해 있다.

競爭的 國際社會속에서 主權國家로서의 確固한 地位와 經濟的 富 및 軍事的 強國의 面貌를 維持·伸張시키기 위한 우리의 不斷한 努力은 이제 그 結實을 맺어가는 過程에 있다. 이러한 狀況속에 우리나라의 大學教科目중 國際關係教科目이 設置된지도 어언 30년이 넘었다. 國際關係教科目은 1900年 P.S. Reinsch教授⁽¹⁾가 美國의 Wisconsin 大學에서 最初로 世界政治에 關한 講義를 行하고同年에 *World Politics*라는 著述을 刊行한 以來 1920年代와 1930年代 및 第1, 2次 世界大戰을 거쳐오면서 美國을 비롯하여 全世界의 大學과 研究所에서 매우 重要한 分野의 學問으로서 研究되어 온 것이다.⁽²⁾

우리나라에서도 6·25 動亂以後 이 分野의 研究가 急速히 增大되어 最近에는 科目的 分化面에서나 內容의 深化度에 있어서 매우 多樣하고 깊은 部分까지 취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分野를 專攻하거나 研究하려는 기운이 점차 크게 일어나고 있는 現時點에서 지금까지는 散發的이며 非體系的으로 配列되어 있던 同分野의 教科目들을 綜合·評價·分析하고 同分野의 教科目들을 擔當하여 一線에서 講義하고 있는 教授들의 諸般人之事項도 아울러 調査·分析하여 보다 바람직한 體系의 國際關係分野教科目의 Curriculum을 提示해 봄으로써 同分野教育의 產出을 極大化(maximize)하려는 데 本研究의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

즉, 필자가 여기서 大學教科에 있어서 國際關係教科課程의 體系를 再構成하려는 基本的 意圖를 要略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Paul S. Reinsch, *World Politics* (New York: Macmillan Co., 1900).

(2) 崔鍾起, 國際關係論(서울: 博英社, 1970), pp. 15—22.

첫째, 現在까지의 大學教科課程中 國際關係教科目的 非體系的이고 任意的인 科目配列을 整理 分析하여 새롭고 보다 進取的인 方向으로 教科課程을 再構成하려는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國際關係教科의 教育經驗에 對한 意義를 한층 높은 次元으로 提高시키고 國際社會에서 要請하는 人的 需要充足을 위한 보다 向上된 方向을 探求하기 위해서이다.

세째, 現在 直面하고 있는 經驗과 앞으로豫想되는 새로운 問題에 對應할 수 있는 教科目內容과 方向을 提示하고 이것을 積極的으로 「리드」할 能力を 向上시키기 위해서이다.

第 2 節 研究對象, 範圍 및 方法

解放後 開設되었고 動亂後 急激히 成長·發展된 同分野教科課程⁽³⁾의 運營面에서 現在 直面하고 있으며 앞으로豫想되는 經驗과 變化等은 世界秩序의 變動과 함께 同分野 教科目全般에 對한 새로운 概念과 體制의 定立을 要請하고 있다. 國際關係가 緊密해 지고 世界秩序에 變化가 생길 수록 國際社會의 움직임은 活潑해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人力도 大量으로 要求되는 것이며 同分野教育에 對한 國內外的 需要도 增大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同分野 教科課程의 體制定立과 새로운 方向을 모색해야 할 時代의 當爲性을 찾을 수 있겠다. 이미 他社會科學分野⁽⁴⁾에서는 이러한 研究가 여러번 시도되어 왔으며 그 結果도相當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이러한 側面에서 考察해 볼 때, 變化하는 世界 속에서 適應ability을 기를 수 있는 教科內容 및 教科課程의 改編은 무엇보다 시급한 問題이며 이를 위해서는 特히 同分野의 教科목을 擔當하는 教授들의 協調와 共同의 努力이 절실히 要請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諸觀點에서 필자는 本研究의 對象과 範圍를 다음과 같이 限定하려 한다.

첫째, 現在 各大學의 教科課程表를 綜合·分析하여 教科分析表를 作成한다. 이는 現在 全國大學이 運營하고 있는 國際關係教科目的 比重과 位度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資料는 本研究의 意義를 한층 더 提高시켜 줄 것이다.

둘째, 여러 大學에 分散되어 있는 同分野 教科목중에서 특히 社會科學에 關聯이 깊은 法科大學, 政經大學, 商經大學중에서도 政經大學의 政治·外交學科를 中心으로 하고 其他大學의 몇몇 科目을 補完的으로 整理·分析한다.

세째, 同分野의 教科목을 擔當하고 있는 全國大學의 教授들에 대한 人的 狀況을 調查 把

(3) 孫製錫, 「國際政治學의 研究 및 大學教育方向」, *韓國政治學報*(韓國政治學會), 第2輯, pp.103—104.

(4) 行政學 및 政治學의 兩分野에서는 이미 Ideal model의 設定이 몇 차례 시도되었다. 이에 關한 參考文獻은,

① 李漢彬, 「發展行政教科課程作成을 위한 教本」, *行政論叢*(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 第六卷 一號, 1968, pp.1—23.

② 尹在豐, 「大學行政學科 模型教科課程 設定에 關한 研究」, *韓國行政學報*(韓國行政學會), 第七號, 1973, pp.7—64.

③ 韓國政治學會, *韓國政治外交學科教科目的 實態와 模範*, 1974.

握한다. 이 作業은 同教科課程의 現狀況의 弊과 장래의 새로운 教科課程模型의 定立에 매우 意義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네째, 以上에서 分析한 資料를 토대로 現在의 教科課程에 對한 改善方向을 提示하고 同分野의 새로운 教科課程model을 設定한다. 그런데 이 模型은 可能한範圍內에서 理想的인 것으로 장래를豫測하여 設定하려고 意圖한다.

위와 같은 分析을 行함에 있어서나 模型을 設定함에 있어서 使用한 接近方法을 要略하면

(1) 各大學으로부터 蒐集된 教科課程表⁽⁵⁾에 依해 各大學의 學年別 國際關係教科목의 比重 및 同大學全體의 比重과 全國大學別 同分野科目의 比重을 比較·分析하고 各大學別 教科課程의 pattern과 system을 파악하는 데 重點을 두었다.

(2) 全國大學의 國際關係分野의 教科目을 擔當하는 教授들을 相對로 説問紙를 作成하고 人的·身上調查를 行한 다음 同分野 教科課程의 模型定立에 要請되며 現在 우리의 需要가 要請되는 共產圈 및 平和研究에 關한 現職教授들의 見解를 調査·分析하였다.

(3) 教科課程에 對한 模型設定은 많은 試行錯誤와 經驗에 依하여 “明白한 價值前提”⁽⁶⁾ (explicit value premise)에 立脚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염밀한 科學的合理性보다는 現在 各大學의 教科課程 運營經驗을 學問的·社會的 要求에 適應하여 變化시키는 價值判斷의이며 技術的인 問題로 다루고자 한다.⁽⁷⁾

(4) 本研究의 分析上에서나 模型定立에 있어서는 教科中心의 課程에 限定하였고 生活center의 教科課程은 除外하였다.

(5) 이 模型은 全國大學에 統一된 教科課程을 提示하려는 것이 아니고 各大學의 教科課程改編에 對한 方向 및 一般的 指針을 提供하기 위한 것이다.

第二章 全國大學의 教科課程分析

第1節 教科課程分析表의 作成

1. 現況

現在 우리나라 全國 15個大學의 政治·外交學科에서 講義되고 있는 國際關係教科목의 現況을 개관해 보면 다음의 (表 II-1)과 같다.

同表에 依하면 각각의 教科目들이 一定한 「률」 없이 無秩序하게 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學年別 區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科目比重이 거의 비슷한 實情이다.

(5) 主로各大學校로부터 蒐集된 校園要覽과 時間表等을 參照했으며 國際關係教科목의 比重分析은 2, 3, 4 學年에 限定시켰고 1학년은 除外했다. 또한 여기서 밝혀둘 것은 一部大學의 소위 實驗大學으로 因한 專攻科目以外의 教科目은 상세히 調査하지 못하고 校園 curriculum에 依存하였다.

(6) Martin Trow, "The Sociology of Education," T. Parsons(ed.), *Knowledge and Society*(VOA Forum Lectures, U.S.I.S.), 1968, p. 151.

(7) 尹在豐, 前揭書, p. 10.

表 II-1

國際關係分野教科目의 學年·學期別 分布現況(全國 15個大學 對象)

科 目 名	學 年	學 期	二 學 年			三 學 年			四 學 年					
			1學期	2學期	1學期	2學期	1學期	2學期	1學期	2學期	1學期			
國際政治論(5) 國際政治概論(2) 國際關係論 國際機構論 國際法(2) 歐美政治史 (西洋政治史)(6) 東洋外交史 歐美外交史 (西洋外交史)(4) 東洋(政治)外交史 西歐政治論 外交論(2) 韓國外交史 比較政府論 西洋政治思想(2) 中世政治思想 國際政治論(2)	國際政治論 國際政治論 國際問題 國際機構論 歐美政治史 歐美外交史 外交史 東洋外交史 韓國(政治)外交史 新生國政治論 比較政治論 東南亞政治論 美國政治論 近代西洋國際政治論 共產主義政治理論 古代西洋政治思想 中世政治思想 國際政治史 美國政治論(2)	國際法(I)(7) (II)(平時國際法) 國際政治論(3) 國際機構論(2) 比較政治論(3) 比較政府論(2) 後進國政治論 外交史 韓國外交史 東洋外交史 西洋外交史(2) 地圖研究 西洋政治思想(2) 外交政策(3) 古代西洋國際政治思想 現代西洋國際政治論 亞細亞政治論 南美政治論 中近東政治論 美國政府論 유권政府論 日本·中國政治 國際政治方法論	國際法(I)(5) (戰時國際法) 國際機構論(3) 國際組織論(2) 地域研究論 外交論 韓國外交史 東洋外交史(4) 東洋政治思想(3) 後進國政治論 亞細亞政治論 比較政府論 近代西洋政治思想 中國政治論 極東政治論 北韓政治論 東北亞政治論 中共產國際政治論 中共對外政策 中共政府論 國際政治演習 國際經濟論(2)	國際政治論(2) 國際政治特講(2) 國際機構論(2) 國際政治學演習(1) 國際關係科(1) 國際關係論 國際行政學(2) 國際聯合論(2) 國際情勢英譯 各國政治論 比較政治論(2) 外交政策 西歐政治論 美·蘇政治論 新生國政治論(4) 極東政治論 現代日本·中共政治論 韓·美·日關係論 南美政治方法論	國際政治論(2) 國際政治論(2) 國際關係科(1) 國際關係論 國際行政學(2) 國際聯合論(2) 國際情勢英譯 各國政治論 比較政治論(2) 外交政策 西歐政治論 美·蘇政治論 新生國政治論(4) 極東政治論 現代日本·中共政治論 韓·美·日關係論 南美政治方法論	41	35	43	25	37	41	35	43	25

*1976年 2學期 와 1977年 1學期 Curriculum 및 各學校의 요함을 對象으로 作成. ※ 政治外交史는 政治史와 外交史를 同시에 計算하는 경우에만 2重計算됨.

또한 科目內容에 相關 없이 高學年에서 다뤄야 할 教科目들이 低學年에 配定되어 있어 學生들의 受講에 많은 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그리고 各學年, 各學期에 配定되어 있는 教科目들의 相互聯關係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程度로 任意로 構成되어 있음도 弊害 할 수 있다.

2. 教科課程分析表의 作成

以上의 表 II-1을 中心으로 教科課程分析表를 作成한 것이 다음의 表 II-2이다.

〈表 II-2〉

教科課程 分析表

分類 分野	科 目 名	頻度	比重	學年・學期 및 頻度		學點・頻度 및 比重		備 考
				學年・學期	頻度	學點・頻度	比重	
國際政治(國際關係)分野	國際政治論 (國際關係論)	15	7.28	2-1	6	2-2	7.25	
				2-2	2	3-12		
				3-1	3			
				4-1	4	4-1		
	國際政治概論	3	1.46	2-1	2	2-1	1.32	
				2-2	1	3-2		
	國際政治史	3	1.46	2-1	1	3-1	0.49	
				3-1	2			
國際組織 및 國際行政	國際政治方法論	2	0.97	3-1	1	3-1	0.49	
				4-1	1			
	戰爭論	1	0.05	4-1	1	3-1	0.49	
	國際政治特講	4	1.94	4-1	2	1-2	1.32	
				4-2	2	3-2		
	國際政治演習	3	1.46	3-2	1	1-1	1.15	
				4-2	2	3-2		
小計	國際政治세미나 (國際關係세미나)	4	1.94	4-1	3	1-2	1.32	
				4-2	1	3-2		
	國際情勢論	3	1.46	4-1	2	3-3	1.48	
				4-2	1			
	9 科目	38	18.45		38	93	15.32	
	國際機構論	11	5.34	2-1	1			
				2-2	3	1-1		
				3-1	2	2-1	4.94	
				3-2	3	3-9		
	國際行政學	3	1.46	4-1	1	2-1	1.32	
				4-2	2	3-2		

分類 分野	科 目 名	頻 度	比 重	學年・學期		頻 度	學點・頻度	比 重	備 考
				學年	學期				
	國 際 組 織 論	2	0.97	3-2		2	3-2	0.99	
	國 際 聯 合 論	2	0.97	4-2		2	3-2	0.99	
小 計	4 科目	18	8.74			18		8.24	
外 交 關 係	外 交 論	5	2.43	2-1 2-2 3-2		2 2 1	2-1 3-3 4-1	2.47	
	外 交 政 策	9	4.37	3-1 4-1 4-2		3 5 1	2-2 3-7	4.12	
	外 交 史	2	0.97	2-2 3-1		1 1	3-2	0.99	
	西 洋 外 交 史 (歐美外交史)	8	3.88	2-1 2-2 3-1		4 2 2	3-8	3.95	
	東 洋 外 交 史	9	4.37	2-1 2-2 3-1 3-2 4-1		1 2 1 4 1	2-2 3-7	4.12	
	韓 國 外 交 史	9	4.37	2-1 2-2 3-1 3-2 4-1		1 1 1 1 5	2-3 3-6	3.95	
	美・蘇 外 交 論	1	0.46	4-1		1	3-1	0.49	
	小 計	7 科目	41	19.90				20.10	
	地 域 研 究 論	3	1.46	3-1 3-2 4-1		1 1 1	3-3	1.48	
地 域 研 究 概 要	地 域 統 合 論	2	0.97	4-1		2	3-2	0.99	
	比 較 政 治 論	12	5.83	2-1 2-2 3-1 3-2 4-1 4-2		1 1 5 1 2 2	2-2 3-11	6.10	
				2-1		1			

分類 分野	科 目 名	頻度	比重	學年・學期 및 頻度		學點・頻度 및 比重		備 考
				學年・學期	頻度	學點・頻度	比重	
各國政治	西洋政治論	6	2.91	2-2	1	2-1	2.80	
				3-1	1			
				3-2	1			
				4-1	1	3-5		
				4-2	1			
	各國政治論	1	0.49	4-2	1	3-1	0.49	
	亞細亞政治論	6	2.91	2-2	1	2-2	2.64	
				3-1	1			
				3-2	3			
				4-2	1	3-4		
	美國政治論	4	1.94	2-1	2	2-1	4.94	
				2-2	1	3-3		
	南美政治論	2	0.97	3-1	1	2-1	0.82	
				4-1	1	3-1		
	後進國政治論	10	4.85	2-2	1	2-3	9.39	
				3-1	1			
				3-2	2			
				4-1	2	3-7		
				4-2	4			
	韓・美・日關係論	2	0.97	4-1	1	3-2	0.99	
				4-2	1			
	美・蘇政治論	2	0.97	4-1	1	3-2	0.99	
				4-2	1			
	日本・中國政治論	4	1.94	3-1	2	2-1	1.81	
				3-2	2	3-3		
	共產主義政治論	7	3.40	2-2	1	2-1	3.29	
				3-1	2			
				3-2	2			
				4-1	2			
	中近東政治論	2	0.97	3-1	1	3-2	0.99	
				4-1	1			
小計	14科目	63	30.58			219	36.08	
	歐・美政治史 (西洋政治史)	12	5.83	2-1	6	2-3	5.44	
				2-2	4	3-9		
				3-1	1			
				4-1	1			

分類 分野	科 目 名	頻度	比重	學年・學期 및 頻度		學點・頻度 및 比重		備 考
				學年・學期	頻度	學點・頻度	比重	
政治史 및 政治思想	東洋政治史	2	0.97	2-1	2	3-2	0.99	
	西洋政治思想	9	4.37	2-1	5			
				3-1	3	3-9	4.45	
小計	東洋政治思想	6	2.91	3-2	3	2-1	2.80	
				4-1	3	3-5		
小計	4科目	29	14.08			83	13.67	
國際法 및 國際經濟	國際法 I	9	4.37	2-1	2	3-9	4.45	
	國際法 II	6	2.91	3-1	1	3-6	2.97	
				3-2	5			
小計	國際經濟	2	0.97	3-2	2	2-1	0.82	
						3-1		
總計	3科目	17	8.25			50	8.24	
	41	206	100			607	100	

以上의 教科課程分析表를 作成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類似한 科目이나 相互聯關係을 가진 教科目은 한 科目으로 統合하였다.

例 1. 共產主義政治論

1. 蘇聯 및 東歐政治論
2. 共產主義政治理論
3. 共產主義批判
4. 中共의 對外政策

例 2. 地域研究論

1. 地域論
2. 特殊地域研究論
3. 地域研究論
4. 地域政治論

그러나 科目的 빈도를 計算함에 있어서는 계속과목도 각각으로 빈도수에 포함시켰다.

例. 西洋政治思想(I), 西洋政治思想(II)에는 西洋政治思想의 빈도를 2로 계산했음.

第 2 節 國際關係科目와 他科目間의 比重

1. 序 說

國際關係分野의 教科目이 各大學에서 他科目에 비하여 얼마만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分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教育內容이 激變하는 國際情勢에 어느 정도 對應하고 있으며 未來에 우리나라가 國際社會속에서 어떠한 位置를 占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다짐하는 데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國際關係分野의 教科目이 他社會科學教科目的 바탕을 필요로 하며 또한 이들 學問의 協助와 關聯없이는 效率性을 폐하기 어렵다는 것은 事實이지만 舊態依然한 國內 社會科學科目이 大多數를 차지하고 극히 部分的 少數에만 國際關係教科目을 配定하고 있는 大學이 多數임을 감안할 때 歷史의 흐름을 度外視한 無事安逸主義로 轉落해 가는 傾向이 있다. 事實 教科課程을 設定·運營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나라의 學問의 傳統과 各大學의 教育方針 및 人的·物的 編制의 特殊性에 따라 教科目的 優先順位와 比重이 다를 수 있음은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教育의 百年大計나 한 人間의 一生을 좌우한다는 深刻한 問題를 놓고 볼 때 便宜 위주로 大學教科課程을 運營한다는 것은 커다란 誤算이 아닐 수 없다. 教育은 教育의 目標와 教育者의 使命感없이는 그 效果를 充分히 살릴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諸般事情을 염두에 두고 現在 우리나라 全國 15個大學의 教科課程을 分析해 나가고자 한다.

2. 全國大學의 國際關係教科目的 比重 및 形態

(1) 다음의 (表 II-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現在 全國大學에서 運營되고 있는 國際關係教科目的 比重은 他科目에 비해 全體의 42% 程度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未來指向의 教科運營方式으로서 우리나라의 學界에서도 同分野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表 II-4)에서 個別學校別로 그 比重을 考察해 보면 그 差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東國大의 30.4%에서 서울大 外交學科의 95.8%까지 그 차가 무려 65.4%에 이르고 있어 學校에 따라 그 不均衡이 지나친 實情에 있다.

同表에 依해 各大學校別로 國際關係教科目에 많은 比重을 두는 學校와 그렇지 않은 學校를 區分해 보면 建國大, 慶熙大, 高麗大, 西江大, 서울大(外), 外大, 梨花大等이 國際關係分野의 教科목에 많은 比重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 大學은 他教科目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II-3〉 國際關係分野教科目과 他科目間의 比重

國際關係教科目	其 他 科 目
42.8% (203/474)	57.2% (271/474)

※()내는 總教科목과 國際關係教科목의 比率임.

(3) 또한 각 학년별比重을 보아도 低學年부터 集中的으로 國際分野의 教科目을 配定하는 학교와 低學年에서는 同分野가 全無狀態에서 高學年에 集中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 實質的 同分野教科目的 配分面에서도 심한 不均衡을 보이고 있다.

〈表 II-4〉 學校別 國際關係教科目的 比重

學校名	分類	2學年	3學年	4學年	全教科目에 對한 國際 關係科目的 比重
建	國	55.6(5)	50 (5)	44.4(4)	50 (14/28)
慶	北	9.1(1)	50 (5)	40 (4)	32.3(10/31)
慶	熙	50 (6)	60 (6)	28.6(2)	48.3(14/29)
高	麗	44.4(4)	40 (4)	75 (6)	51.9(14/27)
東	國	26.7(4)	40 (6)	25 (4)	30.4(14/46)
釜	山	25 (3)	45.5(5)	50 (5)	39.4(13/33)
西	江	40 (4)	55.6(5)		47.4 (9/19)
서	울	44.4(4)	27.3(3)	20 (2)	30 (9/30)
서	울	100 (6)	90.0(9)	100 (9)	95.8(14/15)
淑	明	23.1(3)	25 (3)	55.6(5)	32.4(11/34)
延	世	35.7(5)	41.2(7)	50 (7)	42.2(19/45)
外		27.3(3)	80 (12)	52.6(10)	55.6(25/45)
梨	花	60 (3)	58.3(7)	42.9(3)	54.2(13/24)
中	央	16.7(1)	30.8(4)	41.7(5)	32.3(10/31)
漢	陽	46.2(6)	36.4(4)	30.8(4)	37.8(14/37)
平 均		40.3	48.7	43.8	42.8(203/474)

※()내는 教科目數임.

各大學別 國際關係教科目과 他科目間의 比重

建國大

學年	2		3		4	
分類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數	古代西洋政治思想	現代民主政治	西洋外交史	外書講讀	外交政策論	政治學세미나
科	西洋政治史	韓國政治史	地域研究	政黨論	國際關係세미나	政治權力論
目	國際政治學	選舉論	東洋政治思想	政治行態論	比較政治論	政治社會論
	近世西洋政治思想	議會論	東洋外交史	外書講讀	新生國政治論	輿論宣傳論
	韓國外交論		國際機構論	政治心理學		獨裁政治論
科目數	5	4	5	5	4	5
%	55.6	44.4	50	50	44.4	55.6
平均比 率	14 : 14 (50 : 50)%					

慶北大

學年	2		3		4	
分類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教 科 目	歐・美政治史 行政法 議會政治論 行政學 英書講讀(Ⅱ) 外書講讀(佛) 外書講讀(獨) 英語 民族主義論 政治心理學 調查方法論	政治學概論	國際政治史	英書講讀(Ⅰ)	韓國外交史	韓國政治論
		行政法	國際政治學	經濟學	地域論	英書講讀(IV)
		議會政治論	東洋政治思想	政治學原理	國際政治學演習	現代政治思想
		行政學	比較政治論	政治思想史	各國政治論	政治史演習
		英書講讀(Ⅱ)	國際法	外書講讀		政治學原理演習
		外書講讀(佛)				英書講讀(V)
		外書講讀(獨)				
		英語				
		民族主義論				
		政治心理學				
		調查方法論				
科目數	1	10	5	5	4	6
%	9.1	90.9	50	50	40	60
平均 比 率	10 : 21 (32.3 : 67.7)%					

慶熙大

學年	2		3		4	
分類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教 科 目	國際機構論 歐・美政治論 共產政治論 國際政治論 東洋外交史 西洋外交史	政治學方法論	東北亞政治論	政治學方法論	外交史세미나	政治學特講
		中級日語	西洋政治思想 I	政治學特講	國際政治세미나	原書講讀
		政治史	西洋政治思想 II	輿論宣傳		韓國政治세미나
		中級獨語	韓國外交史	政治發展論		內外經濟事情
		韓國政治論	東洋政治思想			政治理論
		中級英語	比較政治세미나			
科目數	6	6	6	4	2	5
%	50	50	60	40	28.6	71.4
平均 比 率	14 : 15 (48.3 : 51.7)%					

高麗大

學年	2		3		4	
分類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教 科 目	歐美外交史 比較政治論 美國政治論 東南亞政治論	英語 人間對國家 社會系教養科目 自然系教養科目 人文系教養科目	國際政治論 國際組織論 日本政治論 韓國政治 中國政治論	政治學說史Ⅰ 政治學說史Ⅱ 韓國政治 韓國外交政策 政黨論 政治學方法論	新生國政治論 國際關係세미나 各國外交政策 東洋政治思想 蘇聯政治論 西歐政治論	韓國政治세미나 政治行態論
科目數	4	5	4	6	6	2
%	44.4	55.6	40	60	75	25
平均 比率	14 : 13 (51.9 : 48.1)%					

東國大

學年	2		3		4	
分類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教 科 目	歐美政治史 西洋外交史 國際政治論 國際機構論	英語 佛語 古代政治思想 中世政治思想 韓國政府論 韓國政治史 憲法 民法總則 官僚制度論 理論經濟學 輿論宣傳論	東洋外交史 比較政治論 亞細亞政治論 外交政策論 平時國際法 戰時國際法	近世政治思想 政黨論 選舉論 議會論 行政法 財政法 法哲學 國民所得論 原書講讀	國際關係論 後進國政治論 國際行政論 韓國外交史	現代政治論 政治學方法論 原書講讀 政治心理 政治社會 政治體制 政治發展論 行政學方法論 公共關係論 韓國政治史潮 經濟變動論 韓國經濟論
科目數	4	11	6	9	4	12
%	26.7	73.3	40.0	60.0	25	75
平均 比率	14 : 32 (30.4 : 64.6)%					

釜山大

學年	2		3		4	
分類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教 科 目	西洋政治史	政治學原論	西洋政治思想史(Ⅰ)	選舉制度論	比較政治論	政治演習(A. B)
	西洋政治思想史(Ⅱ)	財政學	外交史	政府形態論	國際政治論	韓國政治論
	東洋政治史	韓國政治史	國際法(Ⅰ)	國家論	國際機構論	現代政治理論
		行政法總論	國際法(Ⅱ)	政黨論	後進國政治論	政治哲學
		憲法	外交政策	刑法	東洋政治思想史	英書講讀
		議會制度論		政治行態論	國際經濟學	政治發展論
		輿論宣傳論		英書講讀		經濟政策
		英書講讀		時事英語		
		民法		地方行政		
		一般經濟史		會計學		
		經濟學				
		社會保章論				
科目數	3	9	5	6	5	5
%	25	75	45.5	54.5	50	50
平均 比率	13 : 20 (39.4 : 60.6)%					

西江大

學年	2		3		4	
分類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教 科 目	國際政治論	英語	國際機構論	哲學 I, II	※4학년의 專攻科目 또는 副專攻科目은 學生들이 指導教授의 指導를 받은 後에 決定하므로 教科課程表나 校校要覽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西洋外交史	史學	國際法(Ⅰ)	神學 I, II		
	國際問題	神學	西洋外交史			
	東洋外交史	法學通論	國際法(Ⅱ)			
		憲法	東洋外交史			
		國民倫理				
科目數	4	6	5	4		
%	40	60	55.6	44.4		
平均 比率	9 : 10 (47.4 : 52.6)%					

서울大(政治學科)

學年	2		3		4	
分類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教 科 目	西歐政治論 西洋政治思想 西洋政治史 比較政治論	政治體制論 行政學序論 政治學概論 政治發展論 人事行政	中國政治論 西洋政治思想 I 西洋政治思想 II	政治學研究方法論 現代政治理論 政治過程論 韓國政治史 近代政治思想 行政組織論 政治行態論 이데 오로기論	蘇聯・東歐政治論 東洋政治思想	政治變動論 韓國政治思想 政治哲學 政黨論演習 財務行政 韓國政治文化 法斗政治 政治學特講
科目數	4	5	3	8	2	8
%	44.4	55.6	27.3	72.7	20.0	80.0
平均 比率	9 : 21 (3.0 : 70.0)%					

서울大(外交學科)

學年	2		3		4	
分類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教 科 目	國際政治概論 19世紀國際政治史 外交論 國際法 東北亞國際政治史 東南亞地域研究		20世紀國際政 治史 韓國外交史 國際機構論 共產圈國際政 治論 國際政治與 國際經濟 國際聯合論 東北亞國際政 治論 國際政治理論 中東地域研究		民族主義論 戰爭論 國際政治特講 國際政治史演習 國際政治思想 新生國國際政治 强大國對外交政策 世界政治與韓國	
科目數	6	0	9	1	9	0
%	100	0	90.0	10.0	100	0
平均 比 率			24 : 1 (95.8 : 4.2)%			

淑明女大

學年	2		3		4	
分類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關係科目	其他科目
教 科 目	國際政治學	英語	國際機構論	政黨論	韓國外交史	現代政治學
	外交史	國民倫理	國際法	政治思想史(I, II)	共產主義論	政治學演習
	新生國政治論	家政·保健·心理學(擇一)	比較政治論	韓國女性運動史	外交政策論	政治心理學
		音樂·美術·文學(擇一)		政治機構論	最近國際情勢	政治學方法論
		憲法		政治學特講	東洋外交史	
		政治史(I)		政治變動論		
		選舉論		韓國政治論		
		經濟史		韓國政治史		
		財政學				
		政治史				
科目數	3	10	3	9	5	4
%	23.1	76.9	25	75	55.6	44.4
平均比 率	11 : 23 (32.4 : 67.6)%					

延世大

學年	2		3		4	
分類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教 科 目	美國政治論	韓國政治史	古代·中世	政治學方法論	東洋政治思想	政治學特講
	外交論	韓國政治論	西洋政治思想	計量政治分析	共產主義理論	現代政治理論
	國際機構論	輿論宣傳論	近世西洋政治思想	韓國民族主義	批判	現代政治思想
	國際關係論	選舉論	亞細亞政治論	北韓政治論	比較政治論	韓國政治思想
	近代西洋國際政治史	政治學英語原講(I, II)	現代西洋國際政治史	大眾社會政治論	新生國政治論	政治分析論
		經濟原論(I, II)	中共對外政策	政黨論	外交政策論	叫斯唔論
		民法總則	東洋外交史	行政法(I, II)	國際關係特講	政策形成論
		社會學概論	國際法(I)	時事英語問題	特殊地域國際關係論	
		韓國言論史	韓國外交史	時事問題分析		
科目數	5	9	8	9	7	7
%	35.7	64.3	47.91	52.9	50	50
平均比 率	20 : 25 (44.4 : 55.6)%					

外 大

			3		4	
分類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教 科 目	歐・美外交史 國際政治學 歐・美政治史 政治思想史(I) 政治思想史(II) 政治學英講 憲 法 行 政 學	國民倫理 第二外國語 英 語 外交學特講 國際法(I) 國際機構論 東洋外交史 外交政策論(I) 國際政治練習 南美政治論(I) 中近東政治論(I) 樺東政治論 國 際 法	帝政政府論 美國政府論 外交學特講 國際法(I) 國際機構論 東洋外交史 外交政策論(I) 國際政治練習 南美政治論(I) 中近東政治論(I) 樺東政治論 國 際 法	政治學方法論 政 党 論 行 政 法	新生國政治論 國際情勢英講 國際經濟論 外交政策論(I) 國際政治演習 南美政治論(II) 中近東政治論(II) 樺東政治論(II) 歐・美政治史 各國外交政策	政治過程論 政治學演習 議 會 論 韓國政治史 選 舉 論 現代政治論 獨裁政治論 政 党 論 行 政 法
科目數	3	8	12	3	10	9
%	27.3	72.7	80	20	52.6	47.4
平均 比 率			25 : 20 (55.6 : 44.4)%			

梨花女大

		2		3		4
分類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教 科 目	國際政治(I) 國際機構論 比較政治論	現代政治理念 政治過程論	東洋政治思想 比較政策 比較政治論(II) 國際統合論 西洋政治思想史(I) 歐・美外交史 國際政治(II)	政 党 論 政治分析 民主主義體制論 輿論斗 政治文化	西洋政治思想史(II) 地域政治論(I, II)	政治對 行政 行 政 學 古代政治思想 政治發展論
科目數	3	2	7	5	3	4
%	60	40	58.3	41.7	42.9	57.1
平均 比 率			13 : 11 (54.2 : 45.8)%			

中央大

學年		2		3		4	
分類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教 科 目	美・蘇政府論 國際機構論 外交論	現代政治學 比較政府論 政治思想史 政治學原講 選舉論 政治原講 英語演習	後進國政治 地域研究 特殊地域研究 極東政治論	理論政治 政治學原講 政黨論 國家論 政治哲學 人事行政 韓國政治論 企劃論 財務行政	國際政治學 蘇聯政治 比較政治 美國政治論 國際行政論	韓國政治史 政治學方法論 選舉論特殊研究 現代政治特殊研究 比較行政論 政黨研究 社會科學方法論	
科目數	3	7	4	9	5	7	
%	30	70	30.8	69.2	41.7	58.3	
平均 比率	12 : 23 (34.3 : 65.7)%						

漢陽大

學年		2		3		4	
分類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國際關係科目	其他科目	
教 科 目	歐・美政治史 東洋政治外交 歐・美外交史 國際法 國際政治 韓國政治外交史	英語 民主政治論 比較選舉論 議會制度 政治學說史 獨裁政治 行政學概論	東洋政治思想史 外交論 比較政治論 後進國政治論	政治學說史(Ⅱ) 政治過程論 現代政治論 政治社會學 行政法總論 政策決定論 行政法各論	外交政策 國際機構論 國際政治特講 美・蘇外交論	英語 政黨論 韓國政府論 現代政治史 政治心理學 政治權力論 輿論宣傳論 政治學特講 政治學練習	
科目數	6	7	4	7	4	9	
%	46.2	53.8	36.4	63.6	30.8	69.2	
平均 比率	14 : 23 (37.8 : 62.2)%						

(4) 다음으로 全國大學에서 運營되고 있는 國際關係教科目을 그 빈도별로 分析해 보면 (表 II-3)에서 보는 것 처럼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分野가 地域研究 및 各國政治論 (比較政治포함)으로 30.58%이고 外交分野(19.9%)와 國際政治分野(18.5%)가 거의 대등하게 配定되고 있으며, 반면 國際經濟分野가 가장 적게 나타나 있다.

따라서 各國의 政治 · 外交分野는 어느 程度 理解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經濟的인 側面은 전혀 無視되고 있는 實情이다. 물론 經濟分野를 經濟學科의 소임으로 둘릴 수도 있지만 政治와 經濟는 不可分의 關係에 놓여있으므로 例컨대 “國際政治와 國際經濟”라는 教科目의 設置가 當然히 要求되어진다고 보겠다. 또한 現代國際社會의 움직임은 經濟的 側面에서 가장 活潑하게 進行되며 거의 모든 問題들이 經濟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現在各大學의 政治 · 外交學科에 있어서 國際經濟에 對한 態度는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보겠다.

그리고 各大學別 講義實態를 보더라도 外交部門 中에서도 外交史에 거의 全體的 강의를 配定하는 學校가 있는가 하면 國際政治分野 중에서도 地域研究(Area Study)에 많은 비중을 두는 學校 等 學校別 事情에 따라 各分野 중에서도 일부분에 集中되고 있어 國際情勢의 全體的 흐름을 파악하거나豫測하게 하는 教育機能을 다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表 II-5〉 國際關係教科目의 分野別 比重

區分 比重	國際政治(關係)	國際組織(行政)	外 交	地城 및 各國政治	政治史 (思想史)	國際法	國際經濟
%	18.45 (38)	8.74 (18)	19.9 (41)	30.58 (63)	14.08 (29)	7.28 (15)	0.97 (2)

※() 内는 教科課程分析表에 나타난 頻度數임.

第三節 國際關係分野 教科目의 內容分析

I. 國際政治論

1. 國際政治學의 學問으로서의 位置를 理解하게 하고 國際政治現象과 國際社會의 構造를 科學的으로 分析하여 이를 支配하는一般的 原理를 究明하여 國際平和에 對한 理解의 增進을 도모한다.

2. 現代國際社會의 基本이 되는 政治的 · 法的 原則, 國家政策에 영향을 미치는 物質的 · 理念的 要因, 主要國의 權力의 分析, 國家利益, 國際關係의 基本要因과 問題, 強大國의 外交政策, 國際組織의 發展과 협력 및 現代國際關係의 問題點을 研究한다.

3. 社會科學으로서의 國際政治學의 研究對象과 研究方法을 提示하고 國際政治體制의 構造, 樣相, 變化原理를 分析하고 國際政治現象을 記述, 說明하는 主要理論을 “概念틀”을 中心으로 紹介하며 現時點에서의 주요 관심사와 國際政治의 關係,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주요수단들을 강의.

II. 國際機構論

國際體制의 變遷 속에서 國際聯盟과 國際聯合까지의 발전경위 및 이를支配한 國際關係의 理論과 國際聯合 및 專門機構들의 構造 및 政策決定機能을 中心으로 이룩되는 國際關係와 그 環境과의 關係, 國際機構와 外交政策과의 關係, 國際勢力間의 相互作用의 類型, 紛爭의 平和的・強制的 解決, 軍備와 軍縮, 國際機構와 地域機構과의 關係, 地域機構를 通해서 본 國際統合理論의 檢討 및 國際體制의 一部로서의 國際機構의 役割 등을 강의하여 人類의 平和, 安全 및 國際協力を 위한 國際機構의 成立 및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地域的・特殊的・國際機構를 考察한다.

III. 外交論

1. 外交學概論

外交의 意義, 外交의 歷史的 發達, 先史・上古・希臘・「로마」의 公현, 中世의 外交의 양상, 근대국가사회의 형성과 외교, 근대외교의 이론 및 양상, 외교관과 외교기관, 외교양상의 변천, 외교와 국제법의 관계, 외교의 사무성과 정책성, 외교절차의 요소, 국제연합과 외교, 외교실습과 출어.

2. 外交論

本課程에서는 (1) 外交의 概念과 變遷을 理解하고 (2) 外交活動의 類型, 道具 및 그 機能, 그리고 統制를 分析하고 (3) 海外駐在公館과 領事館의 活動內容 및 外交關係에 關한 「비엔나」協約을 分析・研究하고 (4) 國際協商에 對한 理論과 協商外交의 技術을 研究하며 (5) 現代外交官 및 海外勤務要員의 特色, 任務, 資質 그리고 社交慣例와 外交儀禮를 理解케 한다.

IV. 外交政策論

1. 外交政策의 分析・研究方法을 採득하고 外交政策決定理論을 研究하여 外交政策의 目的으로서 國家利益의 目的・價值를 分析한다.

2. 政策形成에 作用하는 國際的・國內的 諸要因들을 研究하여, 外交政策樹立과 이행과정에 있어서의 役割과 外交政策樹立 履行에 對한 調整・統制, 評價問題를 研究한다.

3. 同時에 冷戰體制下에서의 美・蘇外交政策과 1970年代의 軍事的 側面에서의 強大國 화해정책, 經濟的 側面에서의 先進工業國團과 後進資源保有國團間의 外交政策을 分析研究한다.

V. 外交史

1. 國家間의 外交關係를 歷史的으로 考察하여 그 歷史와 外交교섭관계를 일관하는 原理를 파악하게 하여 國際社會에 대처하는 國家의 基本的 方침을 이해케 한다.

2. 外交史 I

17세기 西歐 민족국가 형성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간의 外交關係와 權力關係를

따름으로서 國際關係 및 國際政治論의 바탕이 되도록 한다.

3. 外交史 Ⅱ

우리나라와 西歐諸國과의 外交關係 및 權力關係를 취급한다.

VI. 西洋外交史

1. 1815年의 Wien會議로부터 1941年의 太平洋戰爭 발발까지의 國제적인 중요한 事件을 政治, 經濟, 社會的 背景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論한다.

2. 近世부터 最近까지의 歐羅巴 각국의 외교사를 취급.

VII. 東洋外交史

1. 戰爭의 原因, 結果의 探究, 世界 속에서의 個別國家의 生存方式 및 行動原理의 追求, 事件別 交涉關係等을 究明함을 目的으로 하고

2. 東洋諸國의 開國으로부터 太平洋戰爭終了에 이르는 期間(1840~1945)의 個別國家의 對外接觸을 범위로 하며

3. 東洋諸國의 開戰背景, 그 交涉始末, 帝國主義列強의 東洋에의 侵蝕, 利權 및 借款競爭을 위한 相互角逐, 太平洋戰爭의 開戰 및 終戰外交에 對한 交涉始末等을 內容으로 함.

즉, 東洋各國이 近代國際社會에 등장되는 경위와 開國 후의 東·西洋의 關係進展樣相 및 東洋國際社會의 變化 등을 강의한다.

VIII. 韓國外交史

1. 外侵의 原因·結果의 分析, 世界속에서의 韓國의 生存方式, 行動原理의 追究, 事件別 交涉關係 等을 究明함을 目的으로 하고

2. 高麗朝의 對外政策부터 日帝侵略으로 亡國될 때까지의 期間(1374~1910)을 範圍로 하여

(1) 高麗朝의 事大, 交隣政策

(2) 朝鮮朝의 對外(明, 女真, 倭)政策

(3) 壬辰倭亂의 始末

(4) 丙子胡亂과 清韓宗屬關係

(5) 大院君의 鎮國政策과 丙寅·辛未擾의 始末

(6) 開國政策과 韓·日條約締結始末

(7) 壬午, 甲申變亂과 韓·清·日 交涉始末

(8) 清·日戰爭의 開戰背景과 韩·清·日 外交關係始末

(9) 露·日戰爭의 始末과 韓國의 地位問題

(10) 日帝의 外交權奪取

(11) 乙巳修好條約과 合併

(12) 臨政의 對外活動의 追求等을 內容으로 한다.

IX. 比較政治論

比較政治學의 目的, 方法, 理論의 接近, 政治體制의 類型, 政治發展研究와 理論의接近, 新生國家와 政治의 leadership, 政治過程의 構造와 機能, 政治體系의 能力과 類型, 現代政治體系의 比較와 發展豫測 및 發展戰略模型을 講義하거나, 美·英·佛·獨·蘇·日 等의 政府機構와 機能에 對한 概括的인 紹介와 아울러 그 歷史的 背景, 地理的 環境, 文化的 傳統, 經濟的·社會的·軍事的 發展過程 등의 分析과 考察을 함으로서 西歐主要諸國의 現行政治機構를 比較檢討한다.

X. 新生國政治論

1. 後進國들의 政治體系分析이나, 2. 後進國들이 근대화과정에서 共通적으로 경험하는 정치적 문제점들의 성격검토, 3. 동남아 後進國의 정치실태와 이론 규명, 4. 주로 「아프리카」新生國들의 정치, 사회, 문화의 연구를 中心으로 중동, 아세아,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을 비교 검토함. 5. 傳統社會와 近代社會의 社會構造, 文化特徵 및近代化의 衝擊과 갈등, 新生國近代化 및 政治發展의 諸類型, 新生國의 政治過程, 政黨, 壓力團體, 行政府, 新生國의 軍隊, 新生國의 「이데올로기」, 新生國의 外交政策 등을 연구한다.

XI. 美國政治論

美國政治制度의 源源, 美國憲法의 發達, 美國政治制度의 原理와 實際, 政黨組織과 그 特質, 大統領의 地位와 權限, 大統領·政府·議會의 組織과 運營, 聯邦司法制度, 州政治制度 등을 연구.

XII. 日本政治

現代 日本政治의 發展過程, 現代日本의 憲法制度와 政治機構, 現代日本의 政黨 및 壓力團體, 日本의 對外關係와 防衛政策, 現代日本人의 意識構造 및 政治文化, 問題點과 展望 등을 연구한다.

XIII. 中共政治論

(1) 中共政權의 成立, 毛澤東思想, 中共의 政治機構, 中共의 基本政策, 文化革命, 中共의 問題點 등의 研究.

(2) 共產主義의 政治生態, 共產體制의 起源, 制度化와 그 變遷, 政治文化와 政治社會化, 政治的 葛藤(conflict)과 政治充員, 政策決定과 察行, 國家建設(nation-building)의 問題를 比較分析한다.

XIV. 蘇聯 및 東歐政治論

共產主義體制下의 政治學의 發展과 政府構造 및 蘇聯을 中心으로 한 共產圈全般에 걸친 制度, 外交를 강의하며 여기에는 東歐匪과 北韓의 外交政策이 포함된다. 그 외로 共產主義理論 및 美·蘇政治論 등을 同時에 강의.

XV. 西洋政治思想 I

希臘, 「로마」, 中世 및 근대 그리고 현대의 정치사상을 다루거나, 古代로부터 현대에 이르

기까지 「유럽」의 중요한 정치사상가들의 사상을 개관하여 그 사상이 정치, 사회문화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고대 희랍사회에서 발생하는 서양정치의 理想을 史的으로 전개, 각 시대의 대표적 사상가와 사상 및 그의 개념과 비전을 追跡하고 그것들의 현대적인 개념화에 주력한다. 즉, 政治思想이 일정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그 시대적 특색을 이루고, 시대의 變遷과 함께 어떻게 그 특색을 달리하며 현대에 어떠한 形態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西歐社會를 舞臺로 史的으로 充明하는 것인 바, 各時代마다 代表의 政治思想家의 思想體系를 個別의 으로 研究하여 그 思想의 潮流와 社會의 影響力を 아울러 고찰한다.

XVI. 西洋政治思想 Ⅱ

문예부흥, 종교개혁 以後의 西歐政治思想을 歷史的으로 考察하는 것으로 Machiavelli에서 출발하여 最近의 政治理論에 이르는 政治理論의 體系的 變遷을 강의하거나, 各 時代의 代表의 政治思想家의 政治思想 및 各時代의 地域別, 國家別로 西歐政治思想에 영향을 미친 예컨대 「프랑스」 혁명기의 정치사상, 영국의 공리주의 정치사상, 「파시즘」사상, 민족주의 정치사상, 미국의 정치사상들을 아울러 고찰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近代政治思潮를 歷史的으로 概觀함으로써 民主主義政治思想과 共產主義政治思想의 根底를 解明하여 오늘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政治思想이 무엇인가를 充明하고 그 展望을豫見케 하는 것을 그 内容으로 하고 있다.

XVII. 東洋政治思想

東洋政治思想의 起源과 形成, 形態 및 發展과정상의 變貌, 修正 등을 歷史的으로 고찰하고 西歐의 政治思想과 비교검토하여 동양정치사상의 특색을 도출함으로써 東洋諸國(日本, 韓國)의 政治史의 이해를 돋는 데主力하거나, 中國의 古代와 中世의 主要한 理念型과 理論에서 東洋 정치사상의 根本 pattern과 一般性格을 밝혀近代以後 現代에 이르기까지 西洋文物과 政治의 영향과의 交衝에서近代化방향으로 움직인 어떠한 융통성이 있었던가를 고찰하고 環境條件과 歷史의 變遷과의 關係에서 民主主義의 政治學의 意義가 가름질되는 西洋世界의 경우와 어떻게 比較되는가의 異同面을 分析함으로써 評價한다.

XVIII. 國際法 I

國際法 第1部는 平時法이다. 國際法의 基礎의 理論과 學說을 國內法과 世界事情의 관련성 하에서 검토한다. 國際法의 理論과 學說이 國내중재, 國際裁判所에서 適用되는範圍와 實効性을 確認한다.

또한, 國際法의 法秩序 및 國際法의 연원, 國家の 承認, 承認의 效力, 國籍, 國家責任, 外交特權과 免除, 條約理論, 國際組織의 發達 및 現在의 機能에 關한 部門, 海洋國際法에 關한 部分, 人權의 國際의 保護에 關한 部分을 詳論한다.

XIX. 國際法 Ⅱ

- 戰時國際法이라고 불리우며 平時가 아니라 戰時에서의 國際關係에 關한 法規定과 戰時에 있어서의 人命의 중요성, 國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나 무력사용의合法化에 關한 部分 등을 강의한다.
- 國際法의 分野에서 國家 또는 國家에 準하는 諸團體 相互間의 紛爭의 平和的 解決方法 내지는 戰爭을 規制하는 國際法規와 戰時중의 中立法規를 UN憲章等 第2次大戰 후의 現代的인 國際基本法規와 國際社會의 새로운 요청에 입각하여 판례적 입장에서 습득케 한다.

第三章 國際關係教科目 擔當教授의 人的 狀況分析

第1節 序 說

同分野教育의 現況과 將來를 判斷하고豫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教科目에 關한 分析 못지 않게 同分野教育을 一線에서 擔當하고 있는 教授들의 人的 資源과 그 資源의 役量이 커다란 比重을 차지한다고 하겠다. 이에 現職教授 200여名을 相對로 說問紙를 作成 배포하였고 同質問에 應答해온 84名의 教授들을 對象으로 그들의 人的 狀況을 分析·檢討해보았다. 그런데 特別히 個人の 意思를 發表할 수 있는 여지를 남은 說問紙의 形態로 배포된 몇몇 項目에 응답해온 內容은 大多數의 教授들의 意思가 相互 類似性을 띠고 있어 國際關係分野를 擔當하는 教授들이 現在 共通의으로 느끼고 있는 問題點들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

第2節 教授의 年齡 및 經歷

먼저 同分野에 從事하는 教授들의 年齡 및 經歷을 보면 <表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6~40세와 41~45세가 共히 28名씩 모두 56名으로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이 分野의 教授人力資源은 36세에서 45세까지가主流를 形成하고 있고 그 外 51세 以上도 13名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충 이 分野의 教授들이 36세 以上인 것으로 알 수 있다.

한편 35세 以下가 불과 3名으로 4% 程度밖에 없는 것은 本質問에 應答해온 應答者의 分布에 있어서도 問題가 있겠으나 韓國教育構造上의 年齡問題와 韓國教育界의 정체현상에도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教育構造上 피교육자의 年齡이 他國家에 비해 비교적 높다는 것을 감안 할 때 40代 前後의 教授들이主流를 形成하고 있는 우리의 現實은 이 分野의 研究가 比較的 近來에 와서 活潑히 研究·教授되기始作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同表에서 教授經歷을 보면 10년의 經歷을 가진 분들이 33名이고 11年 以上 20年 以下가 33명으로 각각 全體의 39.3%를 占하여 計 78.5%로서 약 8割에 達하고 있는 것을

볼 때 60年代 중반을 前後하여 同分野의 研究가 活潑해 졌음을 알 수 있고 教授年齡層과 比較해 보아도 現職教授들의 大部分이 이 時機에 教職에 들어서기 始作했음을 알 수 있다.

〈表 III-1〉 教授年齡 및 經歷別 現態

年 齡 層				經 歷 別			
	年 齡	人 員	%		經 歷	人 員	%
1	35세 以下	3	3.6		5年 以下	6	7.2
2	36~40세	28	33.3		6~10年	33	39.3
3	41~45세	28	33.3		11~15年	17	20.2
4	46~50세	12	14.3		16~20年	16	19.0
5	50세 ~	13	15.5		20年以上	12	14.3
	計	84	100.0		計	84	100.0

第3節 學歷 및 職位

教授의 學歷을 分析하면 同分野에 從事하는 教授들의 學歷이 他 어느 教科分野에 從事하는 教授들보다 그 水準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84名의 應答者中 博士가 74名으로 全體의 88.1%를 占有하고 있으며 碩士가 8名으로 9.5%, 學士가 2名으로 2.4%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同分野의 教育이 比較的 높은 水準에 이르러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아직까지 一定한 體系가 定立되지 못하고 散發的으로 흩어져 있는 教科目 配列을 볼 때 個個人의 우수한 學者들 만으로는 教育이 正常化・合理化 될 수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이런 우수한 同分野의 教授들이 協力하여 效率的인 教科過程作成에 意見을 좇혀야 할 것이다.

한편 높은 教育水準의 學者들이 大量으로 同分野教育에 從事한다는 事實은 이 分野 教育의 將來性이 밝으며 더욱 發展的일 것이라는 點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博士學位를 가진 教授들의 學位取得 場所를 國別로 分類해 보면 우선 國내가 23名으로 31%, 海外가 51名으로 69%이며 海外에서 學位를 取得한 者중에서도 美國이 40名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全體의 절반 程度(全體의 47.6%)를 形成하고 있다. 그外 「유럽」이 6名으로 8%, 日本이 5名으로 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美國에서 學位를 받은 學者들의 數가 압도적인 것은前述한 바와 같이 同分野의 研究가 美國에서부터 始作되었고 지금까지도 主로 美國의 同分野 學界를 中心으로 全世界의 學界가 構成되어 있으며 그 影響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다음에 教授들의 職位를 그 分布別로 보면 教授가 40名으로 47.6%, 副教授가 27名으로 32%, 助教授가 15名으로 18%, 專任講師가 2名으로 2.4%를 이루고 있다(表 III-2 참조).

여기서 同分野의 教授들의 職位가 大部分이 副教授 以上인 것(67名으로 80%)으로 알 수 있다. 이와 關聯하여前述한 年齡構造를 比較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同分野 教授들이 대충 40代를 前後하여 副教授 내지 教授가 됨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博士學位를 가지고 專任講師나 助教授로 教職에 들어서서 적어도 10年 程度는 教職에 坎坷해야 教授職位에 到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表 III-2〉 教授의 學歷・職位別 分布現況

學 歷				職 位				學位取得場所別(博士)		
	學 歷	人 員	%	職 位	人 員	%	地 域	人 員	%	
1	博 士	74	88.1	教 授	40	47.6	美 國	40	54.1	
2	碩 士	8	9.5	副 教 授	27	32.1	日 本	5	6.8	
3	學 士	2	2.4	助 教 授	15	17.9	歐 羅 巴 國	6	8.1	
	計	84	100.0	計	84	100.0		23	31.0	
								74	100	

第4節 擔當科目 專攻 및 活動範圍

同分野의 現職教授들이 그들이 專攻한 分野와 現在擔當하고 있는 分野가 어느 程度 密接한 相關性을 갖고 있는가를 檢討해 본다는 것은 同分野의 學問的 發展如何와 教授들의 滿足度 및 研究·教授에 지대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要因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意義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教授들이 現在 擔當하고 있는 教科目과 教授들의 專攻分野를 分析해 보고 아울러 現在 擔當하고 있는 科目的 教授經歷도 考察해 봄으로써 過去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同分野의 研究 및 教授가 어려한 經路를 밟아 왔는가를 概略的으로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表 III-3〉에서 보는 것처럼 現在 擔當科目과 專攻科目的 相關性調査에서 보면 自己의 專攻을 그대로 講義하는 者가 41名으로 全體의 48.8%, 專攻과 專攻外分野를 함께 擔當하는 者가 20名으로 23.3%, 專攻과 매우 密接한 關係를 가진 科目을 擔當하는 者가 12名으로 14.3%를 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체적으로 自己의 專攻分野를 活用하고 있는 狀況이지만, 염밀한 意味에서 論한다면 專攻分野를 그대로 講義하는 者들은 불과 48.8%밖에 안 되며 그 외는 自己의 專攻以外의 科目을 擔當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專攻分野와 함께 專攻分野 以外를 擔當하는 者들이 23.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現職教授들의 절반 程度는 自己의 專攻을 充分히 活用하고 있지 못하다는 實情이고 보면 차후 이점에 있어서는 段階的 改善이 必要할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大學에서 教科講義를 擔當하는 教授들을 보면 한 教授가 2~3科目的 講義를 擔當하고 있는 現實을 감안하더라도 同分野에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쉽게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現在 擔當하고 있는 教科目的 教授經歷을 보면 9年以上이 가장 많아 36名으로 42.9%이고, 그 다음이 5~6년이 20名으로 23.8%, 7~8년이 18名으로 21.4%로 나타나 있다. 이리하여 적어도 擔當教科목을 5年以上 講義하고 있는 教授들이 全體의 88.1%에 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비록 專攻한 科目이 아니더라도 同分野의 講義經驗이 대체로 5年以上이 되고 있어 한편으로는 專攻科目과 擔當科目間의 「gap」을 最小限으로 좁히고 또한 專攻分野의 幅을 넓힐 수 있다는 理論이 成立되겠지만 他面으로는 專攻以外의 教科목을 長期間 擔當함으로써 主客이顛倒되는 危險을 招來할 수도 있을 것이다.

〈表 Ⅲ-3〉 教授擔當科目 專攻 및 講義經歷現況

專攻과 擔當科目의 相關性			擔當科目의 講義經歷			
	內 容	人 員	%	講 義 經 歷	人 員	%
1	어느 정도 關聯	11	13.1	0~2年	3	3.6
2	매 우 密 接	12	14.3	3~4年	7	8.3
3	專 攻 分 野	41	48.8	5~6年	20	23.8
4	專 攻 과 專 攻 外	20	23.8	7~8年	18	21.4
5	其 他			9 ~	36	42.9
	計	84	100.0	計	84	100.0

다음으로 教授들의 活動程度를 파악하기 위하여 첫째, 關聯되어 있는 學會 및 둘째, 國外旅行 빈도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우선 國內學會에 入會된 數가 187件, 未加入者가 5件으로 나타나 있어 84名의 應答者가 平均 2個學會 以上 加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主流가 韓國政治學會 및 韓國國際政治學會에 集中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表 Ⅲ-4 참조).

〈表 Ⅲ-4〉 學會加入如否 및 海外旅行頻度現況

國內學會入會如否			海外學會加入			海外旅行頻度			
學 會 名	人 員	%	學 會 名	人 員	%	國 名	頻 度	%	
1 韓國政治學會	73	38	美國政治學會	28	21.5	美 國	39	28.9	
2 韓國國際政治學會	70	36.5	美國國際法學會	14	10.8	日 本	45	33.4	
3 韓國國際法學會	20	10.4	美國國際關係學會	14	10.8	亞 細 亞	13	9.6	
4 韓國行政學會	11	5.7	美國Asia學會	13	10.0	歐 羅 巴	12	8.9	
5 其 他	13	6.8	美國經濟學會	9	6.2	其 他	6	4.4	
6 罷 問	5	2.6	其 他	37	28.5	罷 問	20	14.8	
	計	192	100.0	計	130	100.0	計	135	100.0

註 1) 國內學會의 其他는 韓國經濟學會, 歷史學會, 韓國經營學會, 統計學會, 韓國아메리카學會, 韓國未來學會, 韓國地域社會開發學會 等等이다.

註 2) 海外學會의 其他는 世界政治學會, 國際經濟學會, 日本政治學會, 世界蘇聯 및 東歐學會, 캐나다東歐學會 등.

그리고 海外學會의 接觸 및 加入如否를 알아보면 同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總 114件으로 平均 1人이 1.4件 以上으로 入會되어 있고 海外旅行빈도를 보아도 年平均 1.73回로 약 2回에 이르는데 이들의 活動무대가 각기 美國, 日本, 歐羅巴 및 其他 地域에 걸쳐 活動分野가 매우 廣範하며 그 빈도도相當히 찾음을 알 수 있다.

그리므로 同分野의 教授들의 他分野의 活動水準이 높고 많은 研究를 하며 活動分野도 世界的임을 알 수 있다.

第 5 節 共產圈 및 平和研究

오늘날 世界勢力均衡의 多角化로 因한 國際情勢의 不安定속에서 狀況의 긴급성은 國際關係分野의 幅넓은 研究를 절실히 要請하고 있다고 하겠다.

此際에 共產圈의 政治體制를 充분히 研究하고 우리의 한반도에 平和의 물결이 넘쳐흐르도록 하기 위한 共產圈과 平和研究에 關한 問題를 國際關係分野의 教授들을 相對로 그들의 意思를 集約해 보았다.

첫째 共產圈問題에 關하여는 다음의 <表 III-5>에 잘 나타나 있는 바, 共產圈의 研究・分析上에 基本的 問題點으로 舉論되는 資料蒐集의 困難性에 관하여 全體의 86%에 달하는 72名의 教授들이 自由롭지 못함을 절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積極的으로改善해야 함을 強調하고 있는 者들이 50名으로서 全體의 約 60%에 이르고 있다.

또한 無應答者가 10名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同分野의 質問에相當한 注意를 기울이는 知識人們이 많음을 엿볼수 있으며 資料蒐集이 自由롭다고 應答한 者는 불과 2名밖에 없었다.

그리고 共產圈研究에 關한 獨立學科의 設置에 關하여는 同表에서 볼 수 있는 대로 73%에 달하는 61名이 그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약 7割에 달하는 41名은 積極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다.

反面에 必要性을 認識하지 못하겠다는 者가 13名으로 15%, 無關心 및 無應答이 각각 5名으로 約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反應은 대체로 大學이나 大學院課程에 獨立學科나 專攻課程을 開設해서라도 共產圈研究가 活潑해져야 함을 認識하지만 約 3割에 가까운 27.4%의 應答者들이 그 必要性을 認識하지 못하거나 신중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本問題의 取扱에는相當한 注意를 要한다는 경종이 아닐 수 없다.

둘째로 平和研究에 關한 必要性, 時期 및 專攻課程의 設置問題를 考察해 보면 國際情勢 및 韓半島 南・北韓關係의 미묘한 現實이라든가 世界의 學界動向等을 미루어 볼 때 平和研究의 體系化 내지는 研究・檢討가 要請된 주지의 事實이다. 다음의 <表 III-6>에 依하면 國內의 學界에서도 이러한 平和研究에 對한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는 듯 하다.

즉 全體의 90%에 달하는 75名이 平和研究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고 無應答・無關心 및 不必要性을 밝힌 者는 불과 10% 内外에 지나지 않는다.

資料蒐集問題				獨立學科設置問題			
	內容	人員	%	內容	人員	%	
1	自由롭지 못함	12	14.3	절실히 要請	41	48.8	
2	지나치게 不自由	5	6.0	늦었지만 必要	20	23.7	
3	어찌 할 수 없다	5	6.0	必要性 뜻느낌	13	15.5	
4	改善되어야 함	50	59.5	無 關 心	5	6.0	
5	自由롭다	2	2.4	無 應 答	5	6.0	
6	無應答(모르겠다 포함)	10	11.8				
	計		100.0	計		94	100.0

그 時期에 對해서는 「지금이 適切하다」가 35名으로 42%이고 「이미 늦었다」가 28名으로 33%, 「언제라도 좋다」가 15名으로 18%, 「모르겠다」가 7名으로 9%였다. 요컨대 대체로 이미 늦은지는 모르나 그것이 큰 問題가 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研究되어야 할 것이라는 見解가支配的이라고 要約될 수 있겠다.

그러나 平和研究를 위한 學科設置 및 專攻課程設置問題에는 支配的 見解를 發見하기 어렵다. 대체적으로는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는 듯 하나(43名으로 51%) 구태여 學科設置가 必要치 않다는 見解와 時期尚早라거나 無應答이 각각 19名, 12名, 10名으로 全體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平和研究에 關한 獨立學科의 開設은 學界의 見解나 與件으로 보아 慎重을 기해야 할 것으로 思慮되며 우선은 大學院課程에서 專攻課程으로 開設하는 方案等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必 要 性				時 期				學 科 設 置			
	內 容	人 員	%	內 容	人 員	%	內 容	人 員	%		
1	必 要	40	47.6	지금이 適切	35	41.7	절실히	33	39.3		
2	절실히 必要	35	41.7	늦 었 다	28	33.3	時機尚早다	12	14.3		
3	不 必 要	2	2.4	언제라도 좋다	15	17.9	이미 늦었음	10	11.9		
4	모 르 름	7	8.3	모르겠다	6	7.1	不 必 要	19	22.6		
5							모 르 름	10	11.9		
	計	84	100.0	計	84	100.0	計	84	100.0		

第四章 現行教科課程에 對한 評價와 改善方向

지금까지의 研究·分析과 說問紙에 나타난 教授들의 見解를 토대로 現行國際關係分野 教科목의 運營實態에 對한 評價와 改善策을 考察해 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要略될 수 있겠다.

(1) 國際關係教科目的 學年別・學校別 比重의 不均衡 内지 隔差

앞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學校別 同分野教科目과 他教科目的 比重이 최저 25%에서 最高 93.3%까지 配列되고 있어 심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學年別 차도 커서 前述한(表 II-4)에서와 같이 慶北大의 경우 2學年の 9.1%에서 서울大 外交科의 100%에 이르는 不均衡과 3學年の 25%~90%, 4學年の 25%~100%까지 이르고 있는데, 學校別 事情에 依한 差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不均衡 및 差는 극심한 狀況에 處해 있어 이의 改善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 教科目配定의 無秩序・無分別

教科目的 學年別 配定狀況을 보면 最近 實驗大學의 實施와 더불어 學校에 따라 事情은 다 르겠으나 事實은 2學年까지도 教養科目이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大學들이 2學年 1學期부터 基礎課程을 넓어선 例컨대, 國際機構論, 新生國政治論, 各國政治論 等, 當然히 高學年에서 다루어야 할 專門課程의 講義를 配定하고 있어 學生들의 受容能力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學習效果나 能率性의 問題에도 많은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最小限의 Model Curriculum을 提示하고 여기에 各各의 學校事情을 加미하면서 基礎課程과 專門課程을 分離・講義할 必要가 있겠다. 또한 最近의 國力伸張과 世界市場의 多邊化 等에 맞추어 低學年에서는 주로 國內의 事情을 充分히 익히고 高學年으로 移行하면서 國際關係分野의 教科目을 많이 配定하는 것도 바람직한 方向일 것이다.

(3) 科目統一의 問題와 內容의 時代落後性

說問紙에 改善點으로 나타난 最多의 內容은 同分野 教科目的 統一 및 內容의 時代落後性 으로 지적되고 있다.

教科目的 統一問題는 例컨대 國際政治論, 國際政治學, 國際關係論, 國際問題等으로 提示되고 있는 教科目들을 하나로 統一할 必要가 있으며 比較政治論, 比較政府論, 各國政治論이라는 이름으로 講義되는 教科目이나 그 外도 亞細亞政治論, 東北亞 및 東南亞政治論, 極東政治論等도 하나의 統一된 教科目的 계속 講義에 依해 충분히 實質的 內容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教科內容面에서도 最近에 가장 많이 國內教科로 使用되는 國際政治學, 國際關係論, 國際法, 國際行政學, 其他 美國政治, 中南美政治・經濟 等等의 教材들이 대부분 60年代 末이나 70年代初에 著述되었으며 일단 著述된 以後에는 部分的 修正에만 그쳐 오는 형편이라, 全體的 흐름이나 體制面에서 最近의 國際情勢를 正確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特히 最近의 國際情勢의 急變을豫測하지 못하는 實情이고 보면 他分野와는 달리 教材編成 및 教材의 內容面에서 많이 改善되어야 하겠다. 일부 大學에서는 學術誌이나 論文集 等을 教材로 삼고 있는 學校도 있는데 이러한 態度는 가장 最近의 國際問題를 파악할 수 있다는 利

點이 있는 反面 斷片的 知識의 습득에 그칠 危險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同分野教授들이나 研究者들의 보다 誠意있는 研究態度와 相互協力 및 協同的 關係를 가짐으로써 教科目 統一問題뿐만 아니라 나아가 教材의 內容面에서도 보다 바람직한 結果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4) 科目編成의 任意性, 主觀性 및 教材不足

同分野 教科目의 現行運營狀態를 보면 教科目間의 關係를 考慮치 않고 나열적이다.

즉 教科目間에는 linkage概念에 의한 關係學의 性格을 살려 科目編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教授中心의 主觀的 側面에 의해 任意로 편성되고 있는 實情이다.

한편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開設되는 教科目이 늘어남에 따라 教材의 貧困을 더욱 惡化시키고 있다. 물론 同分野의 學問의 性格 自體가 國際情勢에 매우 민감하여 教材의 수명이 짧다는 難點이 있기는 하지만 學者의 真正한 社會的 責任을 意識한다면 보다 진취적 積極的인 姿勢로 學問研究에 全念하여 必要時에는 언제든지 必要한 知識을 담은 教材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하겠다.

(5) 國際經濟에 關한 講義配定 및 教材

政治・外交學科의 教科課程에도 國際經濟學의 講義가 可能한 한 많은 比重을 차지해야 할必要가 있다는 見解들이 많이 있다.

國際情勢는 經濟富國이 政治的・軍事的 强大國으로 되고 있는 實情이고 보면 經濟에 關한 知識은 必須의인 것이라 하겠다. 經濟學科에 편중되고 있는 國際經濟教科目을 世界舞臺에서 활약할 者들의 基本教養을 위해서나 世界經濟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力量을 補強하는 意味에 있어서도 同科目을 政治・外交學科에 많이 時間을 配定시켜야 할 것이다.

最近 同分野(國際經濟學)에도 教材內容에 問題點이 많고 教材도 不足할 뿐만 아니라 市中에 나와있는 몇몇 教材 역시 時代에 민감한 점이 不足하여 國家政策과 관련된 國際經濟動向을 파악・예측하려는 需要에 대처할 만한 教材供給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6) 共產圈 및 平和研究의 強化

南・北對話의 決裂로 다시 惡化된 南・北韓關係나 最近 SALTⅡ 會談의 失敗로 不安의 그림자가 깔리고 있는 世界情勢는 非同盟勢力과 같은 第3勢力의 등장을 더욱 促進하고 있다.

世界의 곳곳에서 自由・共產의 理念對立은 局地的 紛爭으로 化하고 있으며 局地戰이 世界大戰化할 危險이 殘存하고 있다. 이러한 世界의 情勢變化는 共產主義와 直接 대처하고 있는 우리의 現實과 너무나 密接히 關聯되어 있다.

이런 觀點에서 우리의 現實을 積極的으로 解決하고 世界問題에 실마리를 提供할 수 있는 有能한 人材의 養成과 그러한 知識層의 저변을 擴大함으로서 自主國防이 精神的・教育的 側面에서 보다 칠저하게 성취될 수 있기 위해서는 大學教科課程에 이러한 研究課程의 開設이當然히 要求된다. 그리하여 종래의 國際關係教科目的 大部分이 理論的 學習에 치우쳐 있다

면 共產主義 및 平和研究論에서는 이들을 活用할 수 있는 現實的 事例別 研究로서 산 知識을 연마할 수 있는 重要한 教科課程이 될 것이다.

따라서 政策當局과 大學關係者의 深深한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조만간 이러한 教科課程의 開設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第五章 模型教科課程의 設定

第1節 目 標

教科課程의 目標란 그 教科課程을 通하여 達成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未來의 狀態를 意味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目標는 明確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設定되지 않고서는 만족스럽고 意味있는 教科課程을 作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明確하고 理想的인 目標가 設定됨으로서 教育의 方向과 指針이 훌륭하게 提示될 수 있으며 그 效果를 評價할 基準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明確하고 理想的인 目標란 窮極의으로 무엇을 意味하는가? 그것은 追求하고자 하는 價值體系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本研究의 目的과 關聯하여 Model Curriculum을 作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그 目標로 提示하고자 한다.

- (1) 날로 發展하는 國力의 伸張과 함께 國際關係分野教育의 强化를 위한 教科課程의 整備·改善에 一益이 됨을 目的으로 한다.
- (2) 國際社會에 對한 理解力과 體系的 知識을 習得하여 世界舞臺에서 활약할 수 있는 有能한 人材를 養成시킴을 目的으로 한다.
- (3) 急變하는 國際情勢에 對應하여 問題의 認知 및 解決能力을 갖추고 뚜렷한 價值觀을 갖게 하여 그것을 通過 國家社會發展에 한층 더 큰 役割擔當을 行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4) 國際關係分野education의 體系의in 發展과 成長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教授 및 學校當局의 誠實한 curriculum 作成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第2節 接近方法

以上과 같은 目標下에 model curriculum을 作成함에 있어서는 첫째 순수한 理想指向的方法과 둘째 現實的 與件을 고려하여 實施可能한 curriculum을 作成하는 方法이 있겠으나, curriculum 綜合表는 全國政治·外交學科 教授들의 意思의 集約表인 同時に 現實的 與件을 反映하고 있다는 점에서 Model curriculum은 curriculum 綜合表를 準據로 해야 할 것으로 料되는 바 本研究에서는 이 方法에 의함을 밝혀둔다.

- (1) 基礎課程과 專門課程教科목의 段階的 配列

國際關係分野教科目은 社會科學의 一分野로서 社會科學分野 中에서도 高次元의 段階에 位置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同分野의 教育은 基礎分野教科目的 充分한 理解後에 와야 할 性質의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基礎課程과 專門課程의 區別없이 非體系的으로 配列되었던 各大學의 curriculum을 새로운 方向에서 體系化시켜 보자는 것이다.

(2) Linkage概念에 依한 教科목間의 有機的 關聯性을 考慮한 教科목 配定

教育의 重要性은 知識의 體系的 習得에 있으며 이러한 知識의 體系化는 教科課程의 體系化와 密接한 關係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같은 前提에 立脚할 때 오늘날 우리나라 大學 curriculum의 여기 저기에 散發的으로 흩어져 있는 同質類似한 科目들은 知識의 體系的 教育에 逆行하는 소치임이 明白하다고 하겠다. 이에 보다 效率的인 教育結果를 가져오기 위해 各教科목間의 有機的 關聯性에 立腳하여 體系的인 教科課程을 設定하고자 하는 바다.

(3) 實踐的 社會生活에 바탕적한 教科목의 補強

現代社會는 經濟的 體制에 依해 움직이는 實踐的・實質的・動態的 社會다.

理念의 差에 依해 크게는 兩極으로 分斷되어 있으나 經濟的 利權關係로 因한 分斷은 多極化되어 간다. 人類生活의 全分野를 거의 「카버」하는 經濟問題은 國際社會에서 相對方의 意思決定을 豫測케 할 수 있는 중요한 變數가 된다.

이러한 諸側面에서 政治・外交學科에 있어서 國際經濟教科목의 補強이 절실히 要請되어지는 바이며 나아가 理念의 격차를 줄이고 平和共存을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特히 共產主義와 대처하고 있는 우리의 立場에서는 共產主義 및 平和研究에 關한 curriculum의 開設을 주도하고자 하는 바다.

(4) 國際關係教科목의 比重強化

現行 全國大學의 政治・外交學科의 curriculum에 나타난 國際關係分野教科목의 平均比重은 42%정도이다. 이와 같은 比重은 現行 學事行政上 卒業에 必要한 學點이 145學點이라고 할 때, 1學年에서 履修하는 學點을 감한다면 同分野教科목의 比重은 .40學點 程度이며 나머지는 他教科목에 集中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學點數는 科目數上으로는 13~15科目밖에 되지 않는 實情이다. 더구나 이러한 數의 科目이 配定되어 있는 學校는 事實 全國大學의 반수도 못미치는 狀態에 있다.

現今 交通・通信의 發達로 因한 國際往來의 빈번함은 國際社會를 더욱 촉소시키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의 國力伸張은 國際社會에서 일할 수 있는 機會를 더욱 增大시키고 있다. 이러한 갖가지 社會與件은 大學教課에 있어 國際關係教科목의 比重增大를 要請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時代가 要請하는 人材養成에 바탕적한 길이 될 것이다. 이에 模型教科課程內에 보다 많은 同分野教科목을 配定하고자 하는 바다.

第3節 模型教科課程의 探索

政治·外交學科의 模範教科課程表

學年		2學年		3學年		4學年	
學期		1學期	2學期	1學期	2學期	1學期	2學期
國 際 關 係 野	國際政治(關係) 論*	國際機構論*	戰爭(軍事)論	國際關係理論 * 共產主義政治論	平和研究論*	國際政治特講	
	比較政治論 I *	比較政治論 II	後進國政治論*	韓國外交論	各國政治論演習	Area Study	
	外交史	韓國外交史*	比較外交政策論	國際法 II	國際聯合論	國際行政	國際經濟論*
			國際法 I				
小計	3(2)	3(2)	4(1)	5(1)	3(1)	3(1)	
政 治 學 般	政治學概論* 西洋政治思想* 西洋政治史	政治學英文講讀 西洋政治思想* 東洋政治史	政治權力論* 東洋政治思想 韓國政治史*	政治過程論* 政治哲學 韓國政府論*	政治學研究方法 論 現代政治理論* 北韓政治論	政治心理學 政治理論特講 韓國政治特講	
小計	3(2)	3(2)	3(2)	3(2)	3(1)	3(0)	
離 接 野	憲 法	經 濟 原 論	財 政 學	國際經濟論	行政學概論	現代社會科學 의 諸問題	
小計	1(0)	1(0)	1(0)	1(0)	1(0)	1(0)	
總計	7(4)	7(4)	8(3)	9(3)	7(2)	7(1)	

* 專攻必須

() 專攻必須科目數

國際經濟論 및 平和研究論은 教科目分析表上에는 없는 것으로 Model curriculum 作成原則에 의해 新設한 것임.